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글 이세미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제31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주요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대표 이상옥 헬레나 수녀, 정몽준 이사장, 아산상 대상 수상자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돌라병원 원장,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혜심 약학박사.

제31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과 이홍구·장정자·이상주·김종인·한승주·김명자·정진규·이승규·김태현·오연천·이병규·이봉주·최재성 아산재단 이사, 최종원 아산재단 감사,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전길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인규 경

기대 총장, 박정자 연극배우, 2018년 자원봉사상 수상단체인 상록회 최승명 사무총장, 2014년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사회연대은행의 김용덕 상임이사를 포함한 내빈과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효행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따뜻하고 건강한 세



심사 과정을 설명하는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과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상을 이루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시상 부문은 대상인 아산상과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특별상 7개 부문이고, 상금은 아산상 3억 원,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특별상 각 1억 원,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은 각 3천만 원이다. 올해는 6개 부문의 수상자 12명(단체)에게 총 7억7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제31회 아산상은 지난 1월부터 각 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재단 사무처가 발굴한 211건의 후보에 대해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종합심사와 심사위원단이 추가 현장실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병규)와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자)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시상식은 심사위원장인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주요 시상 부문인 아산상,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단체)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주요 수상자의 수상 소감 순서로 진행됐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외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데, 아산상과 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이석로 원장님과 김혜심 박사님은 질병 치료를 넘어 현지 병원과 주민이 자립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글라데시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1.5배 정도지만 인구는 1억6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정부에서 여행 자제국가로 지정할 만큼 여행조차 쉽지 않고 신변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나라인데, 이석로 원장님은 가족과 함

께 현지에 체류하며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혜심 박사님 역시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암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 온 모습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얼마 전에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양로원을 직접 방문했는데,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돋보여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 양로문화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이사장은 “선친께서 아산재단을 세우신 1977년에는 복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뜻에서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다”면서 “선친이나 수상자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산상은 2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힘쓰고 간호학교 설립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온 이석로(56) 꼬람톨라병원 원장이 수상했다. 이석로 원장은 1994년에 3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의료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며 꼬람톨라병원이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빈민들을 치료하며 연간 8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회가 없어 직장을 갖기 힘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해 간호학교도 설립해 자립을 돕고, 장학사업과 임산부 대상 산전 진



수상 소감을 전하는 수상자들. 왼쪽부터 대상인 아산상을 수상한 이석로 고려뿔라병원 원장,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혜심 약학박사.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대표 이상옥 헬레나 수녀.

잘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석로 원장은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최근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진료실과 입원실이 부족해졌는데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 병원에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아산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 있다. 오늘 먹는 음식은 누군가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며, 입고 있는 옷도 누군가 수고해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밤에 일을 끝내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로 존재하며 살아간다. 먼 타국까지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온 사람들

의료봉사상은 소록도의 한센인 의료봉사로 시작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지 빈민층의 질병 치료와 교육, 지역개발을 위해 42년간 헌신해 온 김혜심(74) 약학박사가 받았다. 원불교 교무인 김 박사는 1976년부터 소록도 병원에서 8년간 약사로 봉사하며 한센인 환자들을 돌봤고, 1983년 원광대 약학과 교수가 돼서도 12년간 소록도 봉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5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빈민 대상 보건·의료사업과 교육훈련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에스와티니 까풍아 지역의 환자들을 위해 보건소와 에이즈 쉼터 등이 밀집된 캠퍼스 형태의 까풍아 원광센터를 건립하고, 환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음식,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혜심 박사는 “오늘 주신 이 상을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내

일의 꿈과 희망을 주고 건강한 심신으로 더 넓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온 세계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상은 1973년부터 46년간 서울 강서구와 경기 수원, 전북 완주, 전남 담양 네 곳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대표 이상옥 헬레나 수녀, 이하 작은 자매회)가 수상했다.

‘경로수녀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1973년 청주교구에서 운영하던 성심양로원을 외국인 수녀 3명이 넘겨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 네 곳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며 800여 명의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피었다. 대표인 이상옥 수녀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은 양로원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집이다. 그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늘 누군가가 그분들 곁에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설립자인 잔 주강 수녀의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의 전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복지실천상은 권혜경(49) 논산지역자활센터 실장과 김민석(54)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 정금숙(60) 엠마우스산업 팀장이 수상했다.

권혜경 실장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각장애인인 김민석 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활용 노하우를 교육해왔으며, 최근에는 권익옹호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금숙 팀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엠마우스산업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34년간 발달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에



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31회 아산상을 수상한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뚝라병원 원장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② 이홍구 아산재단 이사와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수상자(단체)인 김혜심 약학박사, 이상옥 수녀(왼쪽부터). ③ 복지실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상주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가 해주었다. 오른쪽부터 정금숙 팀장, 김민석 팀장, 권혜경 실장. ④ 자원봉사상 시상 뒤. 오른쪽부터 대한적십자사 내토봉사회 남성렬 회장, 김승용 씨,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김명자 아산재단 이사. ⑤ 최재성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가 효행·가족상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송승희, 여환숙, 심재순 씨.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상은 김승용(56) 씨와 박영도(60)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대한적십자사 내토봉사회가 수상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승용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급식봉사와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박영도 교장은 1983년부터 무료 야학활동을 해오며 10대 청소년부터 한글을 모르는 노인과 다문화 주민에게까지 한글과 점성고시 과정 교육 등 가르침을 실천해왔다. 대한적십자사 내토봉사회는 30년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집수리·집짓기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송승희(32·전남 영광), 심재순(77·경기 이천), 여환숙(68·서울 마포) 씨가 선정됐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인 송승희 씨는 결혼 후 장애가 있는 남편과 시부모를 정성껏 보살펴왔으며, 심재순 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해 시조부와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4남매를 훌륭히 키워냈다. 여환숙 씨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가족 사랑을 실천해왔다. 🌟

제31회 아산상 수상자(단체) • 아산상 이석로 • 의료봉사상 김혜심 • 사회봉사상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 복지실천상 권혜경, 김민석, 정금숙 • 자원봉사상 김승용, 박영도, 대한적십자사 내토봉사회 • 효행·가족상 송승희, 심재순, 여환숙